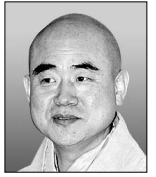


일주문



파키스탄 지원사업 논의차 출국
전태종 총무원장 윤석 스님은 파키스
탄 정부와 초등학교 지원사업을 논의하
고 간다라 지역 불교유적을 둘러보기
위해 3월 24일 출국했다.



문경사암연 회장에 추대
문경 대승사 주지 탄공 스님은 3월 22
일 문경불교회관에서 개최된 사업연합
회 총회에서 문경불교사암연합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제3대 목포불교대학장 취임
목포 약사사 주지 도정 스님은 3월 12
일 목포불교대학에서 학장 취임법회를
갖고 제3대 학장으로 공식활동을 시작
했다.



제8회 선사화 개인전 열어
대구 해광사 주지 진일 스님은 4월
4~1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1·2·3 전
실에서 제8회 선사화 작품전을 개최
한다. (053)473-3131



'종교의 개념' 주제 세미나 참석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 교수는 4
월 2~4일 인도 바나라스 힌두대학에서
개최되는 '종교의 개념' 주제 세미나에
참석한다.



육군본부 2군 사령관에 임명
국군불교총신도회 권영기 회장(前 국
방대학 총장·중장)은 3월 22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육군본부 2군 사
령관에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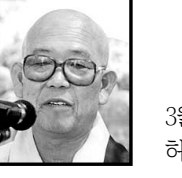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추대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은 3월 24일
능인회사무실에서 열린 (사)광주전남 불
교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신도회
장으로 추대됐다.



9대 대한불자수회장에
불자수 김홍국씨는 3월 28일 서
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취임식
에서 제9대 대한불자수회장으로 취
임했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에
주강불교신문 전 편집부장 하춘생 씨
는 3월 21일자로 태고종 종림 동방불교
대학 교학처장에 임명됐다. 하씨는 6·
7대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을 역임했다.



통사前 주지 신허 스님 입적
통사前 주지 신허 스님(사진)이
3월 19일 통사사에서 입적했다. 신
허 스님은 1934년생으로 45년 월하

“교육환경 변화 속 희망의 길 봤죠”

취임 1년 맞은 금강대 김유혁 총장



나갈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물어지는 태풍은 크나마나 어
린나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급변하
는 대학환경과 무한 경쟁 속에서
어린나무(금강대)가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태종 총립 금강
대를 이끌어 온 김유혁 총장(사진)
의 소회다. 3월 26일 총장 취임 1년
을 맞은 김 총장은 “작은 것이 아름답
다. 세것이 좋다”라는 말로 개교
3년차 금강대의 장점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우리사회가 주문하
는 대학의 급격한 경쟁체제 도입
과 구조조정을 ‘태풍’에 비유한
김 총장은 대학 설립초기부터 비
교적 잘 갖추어진 IT 인프라를 활
용해 미래지향적 대학을 만들어

동학위도 인정된다. 이는 신생대
학의 한계를 세계적 명문대학과의
교류로 해소하려는 김 총장의 아
이디어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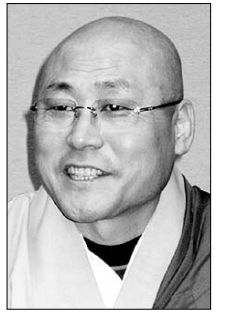
지난해 금강대는 중국의 명문
북경대, 상해사범대, 요녕대 등 3
개 대학과 교류협력을 체결했다.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북경
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금강대는 지난해 학생 16명을 상
해사범대로 보냈다.

“우리는 단지 이름만 빌리는 형
식적 자매결연이 아니라 학생교환
과 학점교류 등 실질 협력체계를
갖췄습니다”라고 밝힌 김총장은
올해는 일본, 내년은 구미지역으
로 교류의 외연을 확대, 약 10여 곳
의 세계적 명문대학과 교류를 시
작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징계보다 사전예방이 화합의 길”

조계종 신임 호법부장 중수 스님



“사후징계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
을 두고 승가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3월 21일 열린 조계종 제166회 임시
중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은
호법부장 중수 스님(사진)은 “업무 특
성상 징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잘못이 드러나면 일벌백
계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결과주의의 산물일 뿐”
이라며 “입장이 서로 다른 한쪽을 징계
하기보다는 전체 승가화합을 위해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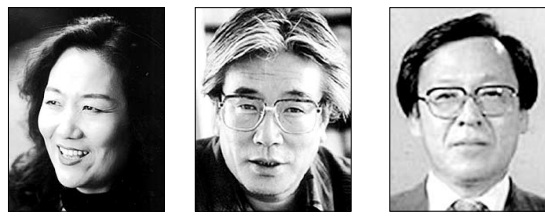
이와 관련 중수 스님은 중국 명사오
핑의 ‘흑묘백묘’론을 비유로 들었다.

즉 검은 고양이
이든 흰 고양이
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
는 사람이라
면 함담과 비방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
겠다”는 스님은 “종권 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수 스님은 1975년 사미계, 82년 구
족계를 수지했다. 삼불사·분황사 주
지,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덕 장곡사 주
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정희씨 김원일씨 염무웅씨

제10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시 문정희·소설 김원일·평론 염무웅씨

4월 30일 시상식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제10회 현대불교문
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문정
희 시인, 소설 부문에 김원일
소설가, 평론부문에 염무웅 평
론가가 선정됐다.

1969년 <월간문화> 신인상
으로 등단한 문정희씨는 최근
시집 <양귀비꽃 머리엔 꽃고>
에 수록된 ‘물어가는 길’ ‘수련
앞에서’ ‘시가 나무에게’를 통
해 불이(不二)의 불교적 상상력
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중견 소설가 김원일씨는 냉
전시대의 인권문제를 정면으
로 증언한 연작소설 <푸른
혼>의 중편소설 <여의남 평전
>으로, 40여 년간 비평의 길을
뛰어난 염무웅씨는 <모래 위
의 시간>으로 불교문학의 앞
길을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
게 됐다.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은 <불
교문예> 봄호에 소개될 예정이
다.

시상식은 4월 30일(토)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에서 열린다.

강신재 기자

쌍문동노인복지센터

보경 스님 관장 취임

3월 23일 개원
식을 갖고 본격
적인 활동에 들
어간 쌍문동노
인복지센터 관
장 보경 스님(사
진)은 “중책을 맡아 부담이 크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을 전공하는 등 ‘준비된 관장’으로
불리는 보경 스님은 “도봉구 관내
유일한 노인 복지시설을 어르신들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
님은 “교양교육과 건강증진, 복리
후생 등 어느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는 복지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총공생회(대표 월주)가 도
봉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
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완공
됐다.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도서관 등 교육 시설은 물론 여가
시설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02)900-4641
유철주 기자

부처님 출가열반절 정진법회 회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3월 24일 저녁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열반
절 참회법회 정진법회 회향
식을 거행했다.

1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불국
사 회주 성타 스님은 “부처
님의 출가와 열반 정신을
오늘에 오롯이 되살려 열심
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불화가 박정자씨 전통불화전



불화가 박정자(중요무형문
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씨
의 네 번째 전통불화전이 3
월 19~23일 광주 남도예술
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파
노라마박물관 건립발원차
열린 불화전 개막식은 조
계종 前 포교위원장 압도, 백양
사 주지 두백, 대승사 주지
문산, 선암사 주지 상경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리랑카 노동자 법당 안산에 개원



안산시 월피동 현대쇼핑
3층에 위치한 ‘마하보디사’
가 3월 20일 정진법회를 봉
행했다. 스리랑카 노동자들
의 쉼터와 신앙공간이 될 것
으로 기대되는 마하보디사
개원법회에는 파주 보광사
회주 효림 스님, 안산 보문
선원 주지 보림 스님, 법종
사 김철오 회장을 비롯 300
여명이 참석했다.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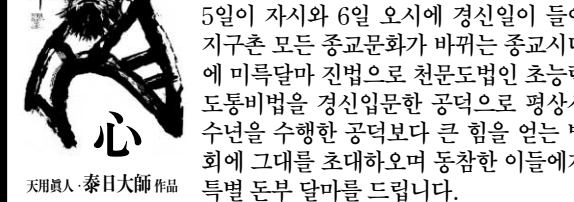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말과 글과 형상에 붙어있지 않고 마음 자리에 감춰진 지성 찾는 경신도통 대법회

도통군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2005년 지각이 변동되는 시대에 도전, 중생제도 사명선사 진인 대법회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치료해도 안되는 정신에 병, 잠신의 병에 병의 된 것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경신 수행법 지각이 변동되는 지구촌 개혁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하여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이며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사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의동능력과 퇴치능력만이 삼사구충을 제도하므로 육경신 도통회로 모든 종교법이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것이다.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중생의 중주도 된 것이며 오늘날 중생도 제도하는 것이다. 말법시대에는 너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양도 아닌척 하는 자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잠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두드려서 새로운 윤리, 도덕정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노라.

지구촌에 천지개벽이 오고있다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모 든 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술귀물한 비 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정진법으로 득도하는 수 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는이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 고 해봐도 잠 안자는 잠신에 병되어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천안통만 잘하면 전쟁,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 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빚을 풀어줄 수 있는 기도중의 기도가 경신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신비 의 기도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까지제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고 자신의 운 명과 생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수행법인 경신인 것이다.

●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인들이 수행한 방법이며 도술, 의술, 선술, 병술, 무술, 침술, 마술, 점술 등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며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과 도술 비법으로 도개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으며 천안통 비법인 것 이다. 율유년 출현 봉황과 인준이 없는 해이므로 중풍, 지매, 정 신병, 잠신병, 병의 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도에 동참 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담 일생대운, 건강, 운명 특별 상담

- 무박 2일 침식무료 제공 ●교재: 평생연구자료 일금 5만원
- 입제: 양력 2005년 4월 5일 화요일 음. 2. 27 (해시)
- 해제: 양력 2005년 4월 6일 수요일 음. 2. 28 (해시) 021821-6392 / 8121-7767 무박 2일 0161)266-3210(직) / Fax 021821-7768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책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 특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 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합장